

합동전화 CH
로카디파파, 2016년 6월 18일

“아프리카로부터 온 하나의 빛”

세계 일치 주간- 에콰도르 여행 일기

“저는 지붕을 잃었지만 별로 가득한 하늘을 별었습니다” - 유럽, 아시아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여러 곳에서 온 젊은이들의 상호문화적인 경험

“휴가 -나눔” - 엘 에스피날 (아르헨티나)

30 명의 젊은이와 몇몇이 색다른 휴가를 보냄: 지역민과의 삶, 작업 그리고 휴식

다른 이를 돕는 것 - 오라노와 베니 압베스 (알제리)

ASIPAA, 몇몇 무슬림들에 의해 조직된 맹인, 시각장애인의 적응을 위한 전문기간
무슬림 4젠 이네스 베날알의 경험

조르쥬 마르케티 (페데) - 행복의 비결

3젠 학교에서 한 젠에게 조르쥬 마르케티 (페데)가 해 준 답 - 카스텔간돌포, 2013년
5월 25일

나이로비 (케냐) - 우리와 함께 만나러 가요!

세 명의 젊은이들과 함께 40개 이상의 부족들과 언어를 지닌 전국 곳곳 출신 500만명 이상이 살고 있는 대도시를 알아보러 가는 짧은 투어

말사밧의 평화를 위한 투쟁 (케냐)

존스톤 두바: 오래된 전쟁과 부족간의 투쟁을 이겨내며 평화를 위해 삶을 바침

케냐 산자락의 한 공동체의 삶

다른이들의 필요가 우리의 것이 됨. 나이로비 근교의 엠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친구가 됨

밀리센트의 스토리 - 나이로비 (케냐)

나이로비의 가장 큰 판자촌 중 하나에 희망이 깃들수 있을까?

피에로 마리아폴리 소도시 (케냐) - 대화하는 문화

사하라 사막 지역에서 마다가스카르에 이르는 아프리카 전체가 가정의 가치를 알아 봄

마리아 보체 (엠마우스)와 예수스 모란과의 대화

끼아라 루빅: 상대방의 문화 안으로 들어가는 것

아프리카 공동체에게 해 준 끼아라의 답 - 나이로비, 1992년 5월 18일

결론

1) COPERTINA: immagini e musica RVM (0' 50' ')

2) APERTURA E SALUTI

Apertura e saluti: In lingue Ngemba, Duala, Bangwa,

라파엘: 우리들의 세계적인 가족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존: 저는 존이고, 케냐 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라파엘: 저는 라파엘이고 카메룬에서 왔습니다. 저는 폰템에서 45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시간, 전세계 곳곳에서 연결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존: 이 합동전화에 한 제목을 붙인다면 아프리카, “Jambo Africa!” 입니다. 아프리카 전체에 인사를 드립니다.

이 강당에는 아프리카 여러 나라 출신들과 그 곳에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사드릴까요?

라파엘: 이 강당에는 또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나 분쟁들에 관련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세우기 위해 이 곳 로마에 모인 국제 위원회의 구성원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요르단의 암만에서 저희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요르단 카리타스회 회장인 와일 솔레이만이 서명한 편지로, 이라크, 시리아, 팔레스티나 등지에서 요르단에 온 수천 수만 명의 난민들을 맞아 돌보고 있습니다.

와일은 편지 중에 이렇게 쓰고있습니다. “중동의 모든 이에게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곳곳에 어둠, 두려움, 죽음, 증오, 난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이 이 모든 것을 너머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고, 매일 하느님은 아직 존재하시며, 지금도 사랑이시며,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사랑이 더 강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해 줍니다.”

여기 우리와 함께 요르단의 오말 아바위가 와 계십니다. 평화를 위한 세계회의에 참석하고 계신데, 특히 중동의 평화를 위해 기여하고 계십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기쁩니다. 오만!

우리의 인사와 지지를 모두에게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폴랜드의 젊은이들과도 인사를 나눕시다.

지금, 크라코비아에서 개최될 세계청년 대회 준비가 한창입니다.

약 2백만 명이 올 것으로 기대하는데, 금년 7월 2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 예정이므로, 크라코비아에서 만나기로 합시다!

이 곳 가까이 카스텔간돌포에서, ‘치타 누오바지’ 관계자들의 연례모임이 열리고 있는데, 60년 전에 탄생했습니다. 여기 스크린에 ‘치타 누오바지’ 창간호가 보이는데 1956년 7월 14일자 발행본입니다.

엠마우스, 예수스께서 이들에게 인사하고 싶어하셨지요?

3) 카스텔 간돌포와 연결 - ‘치타 누오바’ 지 모임 - 엠마우스 인사

헤수스: 우리는 카스텔간돌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는 사업회의 첫 사업으로 사업중의 사업으로 정말 중요하고, 늘 중요했지만, 세계화, 국제화가 이루어지는 지금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카리스마는 이에 대해 하나의 답이 있으니, 그 것은 ‘저 모든이가 하나로’ 즉 ‘우트 옴네스’입니다. 이는 우리의 문화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모든 매체들을 통해, 정보 채널들을 통해 어떤 생각이나 체험 등 무언가 결정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것을 전할 수 있고, 또한 이런 구체적인 경험들이 대중 매체를 통해 수 백만의 사람들 사이에서 순환된다면 이는 이미 ‘우트 옴네스’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 출판계에 쉬운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있지만, 이 60주년을 맞아 여러분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일에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분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엠마우스: 제 편에서도 특별한 인사를 드리고, 특별한 축원을 드리며, 무엇보다 이 60년간 ‘치타 누오바지’가 했던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사업회의 든든한 지주였습니다.

‘치타 누오바지’의 덕을 본 사업회 모든 이의 이름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축원이되고 용기를 주는 말이 되기 바라는 것은 “진정한 증거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의,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빛의, 카리스마로부터 오는 빛의 증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그 어떤 사고와도, 이 세상에 돌고 있는 그 어떤 생각과도 상관없는 것으로서 자신의 생각을 용기를 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늘 진리를 염두에 두고, 우리를 모든 조건에서 자유롭게 하는, 어떤 때는 위험을 무릅쓰게 하는 그 진리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갑시다. 이 카리스마의 증거가 되도록 함께 위험을 감수하도록 합시다. 축하드립니다!

라파엘: 감사합니다.

엠마우스, 예수스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연결되어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인사드립니다.

어제 저는 베네주엘라의 카라카스에서 온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베네주엘라와 전화 연결 녹음

라파엘 (남): 여보세요 ... 저는 라파엘입니다. 통화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 여러분 가까이에 있으면서, 진정으로 함께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에게서 직접 듣고 싶습니다.

알리스 (여) (in spagnolo): 네, 요 몇 개월간 베네주엘라는 식량 부족과 상점 약탈과 보편화된 폭력이 더 악화되어 이제는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모든 이들 사이에서 나눔이 이루어져, 자신들이 가진 것을 함께 나누며 여러가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구역에서는, 우리 중 한 명의 집이 이웃들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 찾아오고 전화를 하는 한 센터로 탈바꿈했습니다. 늘 무언가 줄 것이 있고, 섭리로 약들까지 도달했습니다.

요사이, 첫 그리스도인들의 생동감과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속해서 기원으로, 끼아라와 첫 친구들의 경험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마치 손으로 만지듯 이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여러 방법을 동원해 우리에게 보내준 모든 선물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라파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합니다.

내일 크레타 섬에서 ‘세계 동방교회 공의회’가 개최되는데, 1200년 이후에 처음으로 대부분의 동방교회들이 여러 어려움 중에도 불구하고 공의회에서 만남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온 마음 다해, 영신적으로 함께 하고, 기도 하도록 합시다.

이제 주제를 바꾸기로 하겠습니다.

마루스카와 레안드로가 우리에게 한 가지 소식을 전합니다.

세계일치주간

마리아: 여러분에게 ‘Link Cultures’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레안드로: 이것은 여러 문화를 함께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마리아: 이 것은 올해 세계일치 주간의 주제였습니다. 이 세계적인 모임의 중심은 에콰도르 키토였습니다.

레안드로: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그 곳에서 일어났던 지진에도 불구하고, 에콰도르의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국민들에게 희망의 상징을 주고자 그대로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마리아: 이제 마리아나와 가보르가 우리를 위해 준비한 짧은 여행일기를 보기로 합시다.

4) 일치주간-에콰도르 여행 일기 RVM (3’ 33”)

스피커: (여)

지금은 새벽 세시이니, 로마는 잠들어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 보면서, 지난 4월 16일, 에콰도르에 지진이 발생한 후에 그 곳 젊은이들과 했던 전화 통화가 기억났습니다.

“저는 지붕을 잃었지만, 별이 빛나는 하늘을 벌었습니다” 이제 그 별이 빛나는 하늘” 을 향해 떠나야 하는 지금, 내게 그것이 기억났습니다. 에콰도르.

키토에 도착했습니다. 소박하고, 열정적인 한 그룹의 사람들이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여 온 젊은이들이 이 나라의 원주민들과의 문화여행을 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상호문화적인 경험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유럽, 아시아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의 젊은이들입니다.

삼이와 윌리엄은 키투까라 백성의 두 젊은이인데, 우리에게 원주민과 혼혈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문화적 전통을 숨기고 살아야 했던 한 종족의 고통과 투쟁에 관해 얘기해주었습니다.

이 기간동안 이 부족 중 몇몇 사람들을 알수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출발합니다!

첫 단계는, 에콰도르 동부의 푸 요시로 아마존 밀림의 근원지입니다.

여행하면서, 자연이 제공하는 초록빛의 다양한 색깔을 발견하는 것은 참으로 매혹적입니다.

씨와쿠차 공동체에 도착합니다.

나디노 (남): 우리는 키추와 공동체의 하나인 시와쿠차에 와 있습니다. 세상에서 더 이상 무기를 제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꿈에 걸맞은 한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대화, 평화, 형제애의 공간을 구축해야 합니다.

스피커: (여)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과, 상대방과, 환경과, 사물들과, 초자연 적인 것과 등 다양한 종류의 관계를 깊이 다질 수 있을 것인데, 존재의 본질은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사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경험은 바로 , “세상을 다른 방법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안데스 문화를 알게 되면서 우리는, 그들의 인간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풍요로움과 이 민족이 지닌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우리는 인간이 지닌 참된 것, 즉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능력을 재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며, 이것은 대화를 시작할 기회 라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세계의 중심에 있는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이 부는, 저 자신이 한 개인으로서 내면에 지니고 있는 , 너, 그 남자, 그 여자와, 존경심과 연대감, 공유의 부는 저 자신 부터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해 주었습니다.

“..... 저는 지붕을 잃었지만, 별들을 벌었습니다!” 저는 문화의 바다에서 저 자신을 잃었지만, 별들로 가득한 하늘을, 내 안에 머무는 실현 가능한 형제애의 꿈을 벌었습니다.

라파엘: (남) 색다른 휴가.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 젊은이들이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짧은 비디오를 보내주었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5) 라틴 아메리카 남부 지역- “휴가, 나눔”-엘 에스피날 (아르헨티나) RVM (3’ 43”)

크리스치안: (남) 이번 여름에 저는 조금 다른 휴가에 참석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그 제안은 아르헨티나 북부지역의 한 작은 마을의 “ , 합숙, 나눔” 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이 안내에 따라, 저는 무엇을 하러 그리고 어디에 가는지에 대해 별로 알지도 못한 채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00명의 주민이 있는 마을 엘 에스피날에 도착했습니다.

강들과, 언덕들로 둘러싸인 농부, 양봉인 그리고 방직업자들 등 아주 소박한 사람들의 마을이었습니다.

솔 왈바: (여) 우리는 약 30명의 젊은이였고, 남녀 포콜라리노들도 있었는데, 며칠 간 그 공동체와 함께 삶을 나누기 위해 모였습니다.

마구이: (여) 우리는 그들 일상의 일들을 함께 나누며 여러 활동을 했습니다. 함께 담배 농원에서 일하고, 꿀을 따고, “토르티야”를 요리했습니다 .

며칠은 미사가 있었고, 다른 날들은 공동체들과 함께 할, 말씀의 전례를 조직했습니다. 우리는 황금률’을 삽화와 함께 준비해서 하루 중 어떤 상황에서나 살 수 있도록 전하고자 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웠던 것 들 중 하나는, 일치 안에서 모든 것을 건설한 것입니다. 미리 준비된 프로그램은 없었지만, 각자의 걱정거리와 지역 주민들의 현실에서부터 시작하며, 하나씩 매일의 활동을 결정해갔습니다.

크리스치안: (남) 우리의 휴가이기도 했기에 자연 안에서 휴식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에 서로를 더 잘 알고, 얘기를 나누고, 축구 경기를 하고, 영화를 보고, 말을 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이들에게 전염되는 우리 사이의 일치가 더 강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오거나, 전기가 나가고, 가스가 떨어지는 등의 악조건들이 발생할 때면, 우리는 그 지역의 현실과 하나하도록 서로를 돕고,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고자 힘썼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과의 모든 만남을 통해 서서히 그들의 스토리를,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고통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그들의 깊은 경험, 그들의 상처들을 말하기 시작했고, 이는 단순 한 우리의 경청을 통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들과 함께 , 그들로 부터 단순성과 순수성을 배웠습니다.

요아킨 (남):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준 공동체와 함께 믿기 어려운 날들, 아주 아름다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지내는 것은 하나의 커다란 도전이기도 했는데, 나는 정말 다시 돌아오고 싶습니다.

메르체데스 (여):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경험은 예전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을 열고, 저 자신으로부터 나와야 했는데, 저는 좀 수줍음을 타기 때문에 어떤 때는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디에고 (남): 우리가 함께 했던 삶은 마치 하나의 마리아폴리 같았습니다. 아무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카를라 (여): 제게 이 휴가는, 사람들 안에서 하느님을 다시 만나는 것, 일치를 통해, 작은 행위들을 통해 그리고 자연을 통해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기 (여): 벌써 집에 돌아가야 하지만, 사회적인 네트 워크를 통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계속해서 일상생활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경험은 배우고, 일치를 건설하고 관상하는 경험이었고, 만일 우리가 일치를 지향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의 선물임을 재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크리스치안 (남) : 차오! 감사합니다!

라파엘: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 젊은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알제리아로 가겠습니다.

이 거대한 나라의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오라노의, 다른 하나는 사막의 오아시스 베냐베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무슬림 친구들이 얘기를 전해 줍니다.

6) 다른 이를 돕는 것 - 오라노와 베니 압베스 (알제리) RVM (3' 43")

세라자드 메스리(여) (ASIPAA 창설자 겸 부회장): 저는 불어로 하는 이 지원 코스에 처음 참여하면서, 그들이 양성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맹인들과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통합적인 전문 기관을 창설할 것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파테마 할리히(여) (인쇄 작업장 보조): 이것은 점자 인쇄기이고, 이것은 인쇄된 책인데, 이건 점자로 된 것이고, 이건 활자로 된 것입니다.

모하메드 라후엘리 (남) (ASIPAA 부회장: 맹인): 우리는 이 장소를 맹인들이 직업세계에 입문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도구 가 되는 정보학, 인쇄술, 마사지 요법, 문화 분야로 영화와 음악 등 실질적인 지식을 전해주는 작업장으로 개조했습니다.

우리 협회가 받았던 첫 지원금은 A. M. U. 덕분이었습니다.

이마네 하마니 (여) (ASIPAA 회장): A.M.U 는 일치된 세계를 위한 하나의 기구로, 현재 정보 사용의 홍보를 위한 10 번째 활동에 이르렀습니다.

이 양성과정을 완성하기 위해 한 사이버 카페”운용의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이는 , 여러 방법으로 게임을 즐기고, 연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기위해서 입니다. 즉 도서관을 꾸미는 것입니다.

우선 마사지 요법과 림프 배수로 부터 시작하여, 동시에 여러 작은 사회문화적 실험 실로 성악과 수공예의 작업장들이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머, 가장 기본적인 활동은 그들이 직업세계에 입문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협회에서는 세 사람에게 직업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활동들은 10 명에서 11 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용됩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현재까지 15 명 정도의 젊은이들을 국립이나 사립 기관들에 취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서 사하라) 베니 아베스의 9 살, 이네스의 경험담

이네스 베날알 (여):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나는 이네스이고 여기는 우리 가족이에요. 아빠, 엄마 그리고 내 여동생들이에요.

어느 날, 우리는 모두 함께 탄닌 오아시스에 갔어요. 거기서 나는 한 여자 아이를 알게 되었는데, 그 아이는 나에게, 자기 집에 모래가 너무 많아 눈병이 나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아이는 나를 당나귀에 태워주기까지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나는 부모님에게, 그 아이들을 위해 옷 , 책 그리고 장난감들을 모아 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며칠 후에 아빠는, 친구인 지노와 잔-피에르와 함께 오아시스로 되돌아가서 우리가 모은 것들을 전해 주었어요 .

라파엘: 이 아이 이네스의 얼굴에서 읽을 수 있는 기쁨이 우리가 보게 될 비디오를 소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첫 포콜라리노들 중의 한 분인 죠르쵸 마르케티 페데가 지난 5 월 29 일에 천국으로 떠났는데, 페다가 한 그룹의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기쁨의 비결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끼아레토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 파스칼레 포레지를 기억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1 년 전 바로 오늘, 우리 지역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를 땅으로 돌려보내 드렸습니다.

늘 끼아라 곁에서 함께 하며, 이태리의 로피아노 혹은 나이로비 등 소도시를 태어나게 하고 치타 누오바와 같은 출판사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7) 죠르쵸 마르케티 (페데) - 행복의 비결

페데: “[...] 사랑하는 것, 특히 버림받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행복의 비결이에요.

[...]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단지 다음 세상에서 만이 아니라, 만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버림받은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면, 이 세상에서도 행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상, 영원한 세상, 영원한 행복의 대기실인 행복을 맛 보아요. 예를 들어 나는, 나의 나이 때문에 대기실에 있어요. 포코는, “노년기는 천국의 수련기” 라고, 저 세상에 갈 준비를 하는 것 이라고 말하곤 했어요.

이것은 기억해야 하는데, 많은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이 것은 그 곳에 도달하기 위한 문이에요. 여러분은 “내가 몇 살인지” 물었지요? 한 번 맞춰보세요. 팔십 다섯, 팔십 넷. 네 잘 맞췄어요! (박수)

그러면 여러분은 “페데는 84 세인데,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했나요? 당신은 행복한가요?” 하고 물을 수 있을 것이에요.

나의 답은 “그렇다!” 는 것이에요. “나는 84 살이고, 행복해요!”

존: 페데에게서 행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페데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도착합니다. 여러분에게 저의 나라를 소개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럼 이제 시계를 풀어 놓고, 시간이 데려다 주는대로 따라갈 것을 권합니다.

엠마우스와 헤수스가 지난 5 월에 이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 기간동안 나이로비에서는 여러 양성학교에서 가정, 토착화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 전체와 관련된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옛날의 상황들과 현대화의 비극들... 부족들과의 적대감 그리고 나이로비와 같은 대도시 주변의 판자촌 에서의 삶의 어려움 등을 말해주는, 몇몇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친구의 안내를 받아 나이로비로 들어가겠습니다.

8) 나이로비 (케냐) - 우리와 함께 만나러 가요!

제임스 (남): 차오! 케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나이로비 입니다.

루시 (여): 케냐의 수도입니다!

오드리 (여): 환영합니다!

제임스 (남): 나이로비에는 5 백만 이상의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전국 곳곳 출신의 케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40 개 이상의 부족들과 국어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길을 걷다보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언어는 통용어인 스와힐리어와 영어 입니다.

루시 (여): 이 분은 케냐의 첫 대통령 요모 케냐타입니다. 케냐는 1963 년에 독립을 획득했습니다. 케냐는 세계의 다른 나라들처럼 국제적인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테러리즘으로 예를 들어, 가리사와 웨스트게이트 몰 폭탄테러 사건 등입니다. 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미래를, 우리 앞에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합니다.

오드리 (여): 여기는 마사이 시장이고, 개방된 시장입니다. 여러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수공예품, 의류, 귀거리, 신발, 팔찌, 목걸이 등을 진열합니다.

마치도 케냐의 여러 다양한 문화의 전시회장 같습니다.

다른 시장들에서와 같이 값을 올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흥정하는 기술이 좀 있다면 좋은 품질의 제품을 괜찮은 가격에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임스 (남): 이제, 우리의 짧은 나이로비 투어를 끝맺겠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야 하므로 여러분에게 작별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이로비에서 가장 보편적인 교통수단은 마타투이므로 우리는 마타투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차오!

라파엘: 나이로비를 떠나 말사빰으로 갑시다. 이 지역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부족간의 분쟁이 있던 곳인데,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보도록 합시다.

9) 말사빰의 평화를 위한 투쟁 (케냐)

스피커 (남): 케냐 북부 여행에는 전문 운전기사가 필수적이다.

나이로비에서 에티오피아 국경에 접한 마지막 도시 중의 하나인 말사빰까지는 10 시간 정도 여행해야한다.

케냐 중부지역의 작은 도시들과 푸른 초원을 지나간다.

앞으로 나아가면 갈수록 길은 더 울퉁불퉁해진다. 이 지역은 예전의 통치자들이 소홀히 했음이 여실히 드러나 보인다

케냐 북부는 14개의 서로 다른 종족들이 살고 있고, 대부분이 유목민들이다

이 아름다운 풍경이 부족간, 특히 보라나 족과 렌딜레 족의 분쟁으로 인해 피로 물들었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

이는 부족한 물과 방목할 땅의 부족으로 인해 지난 날에 일어났던 분쟁들의 상흔이다.

레라포 추장 (렌딜레 공동체) (남) (parla in Swahili):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우리 사이가 많이 갈라졌었습니다. 각자가 풀과 물을 찾아야 했기때문에 우리 사이에 싸움이 잦았습니다.

아아 두바(보라나 공동체) (여) (parla in Borana): 위기가 닥쳤습니다. 보라나 족과 모리바노 족이 죽어갔습니다. 어디를 가든 전쟁이 있었고 우리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스피커(남): 엘리사벳 카니니는 평화교육 석사학위를 땀고, 저변에서부터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나이로비 근교의 옹가타 롱가이에 살고 있다.

엘리사벳 카니니 (여) (parla in inglese): 저는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이 분쟁들이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도록 색연필과 종이를 주면 전쟁 장면, 서로 죽이는 장면들을 그리곤 했습니다. 미움이 정말 깊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 채소를 경작해도 서로 판매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유가 많아도 원수였기 때문에 서로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

저는 이 그룹들의 발전을 막아버린 그 분쟁에 대해 전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거기서 존스톤 두바를 만났습니다.

존스톤 두바 (남) (parla in inglese):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존스톤입니다. 말사빃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피커 (남): 존스톤은 22 살이며, 말사빃 근처 바다사 마을 출신이고, 보라나 부족에 속한다.

존스톤, 혹은 많은 이들이 즐겨 부르는 두바는 , 대 가족의 장손으로 그는 모두에게, 특히 그의 더 어린 형제들에게 지남철과도 같은 존재이다.

보라나 족에게 염소와 소는 생활의 중요한 원천이다.

그 곳의 전기와 물의 부족은 단지 생활하는 것”그 자체가 전 서간을 요하는 일이 되게한다.

존스톤 (남) (parla in Swahili): 부족주의, 평화의 부재는 항상 저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저는 모두가 일치되어 한 가족처럼 지내기를 원합니다. (.....)

공동체 안에서 젊은이, 장년들..... 모두가 하나의 역할을 지니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것을 기회로 삼아 제가 할 수 있는 한, 자주 서로를 죽이는 우리 공동체들 사이에 평화를 전파하는데 전념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스피커 (남):

존스톤은 반대편 골짜기에 있는 한 학교에서 자원 봉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원수인 렌딜레 부족이었다.

아아 두바 (존스톤의 어머니) (여) (parla in Borana): 우리는 걱정했습니다. 살해당해 더 이상 집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엘리사벳 카니니 (여) (parla in inglese): 그는 렌딜리 족이 받아들인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 그의 태도와 개방성 덕분에 사람들은 그를 보라나 족으로 보지 않고, 마치 그들의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

존스톤 (남) (parla in Swahili):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연장자들, 우리 마을의 책임자와 젊은이들의 참여를 이끄는 것입니다.

엘리사벳 카니니 (여) (parla in inglese): 연장자들은 여자들의 말도, 젊은이들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

존스톤이 그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태도 덕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희생을 동반한 존경심을 보인 때문이었습니다. (.....) 그가 사람들을 대한 태도와 사람들의 삶에 들어간 덕분에 받아들여 질 수 있는 길을 열었고, 한 번 받아들여지면, 그의 말도 귀 기울여 듣게 되지요.

레라포 주장 (남) (parla in Swahili): 우리가 지니고 있던 문제들은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서로의 가족을 흠치지 않고, 서로 죽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형제 처럼, 공동체 처럼, 서로 이해하는 사람들 처럼 살기로 결심했고 예전의 다른 모든 것들은 버렸습니다.

스피커 (남): 존스톤은, 젊은이들과는 특별한 무기인 축구를 활용했다.

존스톤 (남) (축구장 가장자리에 있는 모습) (parla in inglese): 우리는 이 지역 곳곳에서 온 청년들입니다. (……) 예전에 이 공동체들은 서로 싸웠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오늘 여기에 우리의 일치를 표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건설하고, 우리 사회에서 원하는 변화의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압둑 주장 (보라나 공동체) (남) (parla in Swahili): 두 공동체에서 조직한 이 축구 프로젝트는 좋은 것으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가갈로 (보라나 공동체) (남) (parla in inglese): 여기서 우리와 함께 즐기는 이 아이들은, 이 구역의 차기 건설자들이 될 것입니다.

미탐보 (렌딜레 공동체) (남) (parla in inglese): 이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평화를 받아들일 것을 기원합니다. 평화는 번영과 발전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아아 두바 (여) (parla in Borana): 이제는 평화롭습니다. 사람들은 일치되었고, 공동 시장이 있어 렌딜레 사람들은 그 들의 우유를 팔고 대신에 우리에게서 카트 차를 구입합니다. 우리에게 양배추를 팔고 우리에게서 다른 것들을 구입합니다. 하루를 함께 보냅니다. 평화롭게 지내며 우리의 가족들도 함께 방목합니다.

엘리사벳 카니니 (여) (parla in inglese): 평화를 건설하는 것은 하나의 부르심입니다. (… …) 많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 렌딜레와 보라나의 젊은이, 여자들, 고령자들은 단지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폭력이 있는 다른 공동체들에게도 평화의 중개자들이 될 것입니다.

압둑 주장 (남) (parla in Swahili): 비가 다시 내렸고, 우리는 잘 지냅니다. 하느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양식도 부족했었는데 이제는 풍족하며 마치 하나의 유일한 공동체처럼 생활하고 있습니다.

글 (그래픽)

“평화는 하나의 투쟁은 아니지만, 이를 위해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것이 작다하더라도, 헛된 것은 아니다.”

(케냐의 제랄딘과 트렛자 두 젊은이가 만든 노래에서 발췌)

존: 저는 케냐 산 자락의 엠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곳에 케냐의 포콜라레 운동 첫 공동체 중 하나가 살고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현재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 들어보겠습니다.

10) 케냐 산자락의 한 공동체의 삶

스피커 (남): 나이로비에서 두 시간을 가면 케냐 산 자락에 위치한 엠부시를 만나게 된다. 그 도시의 대성당은 한 가지 특징이 있다. 그 구조 안에 그 지역 전통의 근본적인 상징들이 통합되어있다. 지붕은 케냐산의 두 봉우리를 상기시켜주고, 가장자리의 기둥들은 한 나무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건축가 카를로 푸마갈리에 의해 실현된 것이다.

피에로 프리미에리 신부 (in italiano) (남): 카를로 푸마갈리는 이 곳에 와서, 케냐 산과 그 지역민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모구모 나무와 형제애의 상징인 두 손으로 이루어진, 주교님의 문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교님께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알리기 위해 조형도를 준비해서 본당들을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즉시 알아차렸기 때문에 “왜,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하지 않고 즉시 받아들여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참여했는지, 건축 작업은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스피커 (남): 이 건축물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13년이 걸렸다. 카를로 푸마갈리가 이 경험에 대해 이렇게 기억했다. “자신들의 대지에 천천히 지어져 가는 이 예사롭지 않은 건축물은 작업이나 호기심 때문에 가톨릭이건 아니건 모든이들의 관심을 끌었고, 결국에는 그 지역의 사회적 현실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피에로 프리미에리 신부는 조국 이태리에서보다 여러 해 더, 케냐에 살고 있다. 엠부 가까이 있는 자신의 ‘이리아 모라이’ 본당 주변에는 ‘70년대부터 포콜라레 운동의 첫 공동체들이 발전되어왔다.

마리아 고레티 무토미 (여) (in lingua kiembu): 엠부 교구 안에는, 자손이라는 뜻으로 ‘미비리가’ 라고 하는, 서로 다른 종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콜라레 영성으로 인해 이 그룹 혹은 저 그룹에 속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만큼, 서로 사랑하며 함께 잘 생활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파트릭 니에루 마우구 (남) (in lingua kiembu): 저의 삶에 대해 무언가를 얘기하자면, 특히 끼아라의 삶과의 만남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생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한 학교의 교사로서 이 삶은 모든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모든 이들과 친교를 맺는 것이 단순해지니, 우리는 모든이를 하느님의 자녀로 바라보고 형제로 대하도록 배웠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살고, 함께 지내고 싶은 친구가 됩니다.

아우스틴 니에루 (남) (in lingua kimbeere): 우리가 단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서로 돕고, 상대방의 필요를 우리의 필요로 느끼는지 하는 것 입니다.

음악

스피커 (남): 자신들의 자녀를 포콜라리니로 봉헌한, 가정들을 방문하러 가 보기로 하자.

우리가 가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의 부모이기도 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니, 정말 우리의 부모인 듯 방문하기로 하자.

음악

마리아 고레티 무토미 (여) (in lingua kiembu)

부모님들과 가족들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자신들의 자녀가 가까이 있음을 느끼셨습니다. 큰 기쁨 속에서 많은 것들을 함께 했습니다.

파트릭 니에루 마우구 (남) (in lingua kiembu): 가정이나 직장에서 혹은 공동체와 어려움이 있을 때 저는, 엄마 끼아라에게 큰 감사의 정을 느낍니다. 저에게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젠이었을 때 배운 것이지만,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것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는 것입니다. (……) 그리고 저는 어려움을 만날 때, 버림받은 예수님을 알아 보면서 그 것을 올바르게 받아들일 줄 알고, 그 것이 끝까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열쇠임을 알아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존: 여러분에게 제 친구 한 명을 소개하겠습니다. 밀리센트입니다. 그는 나이로비에서 가장 큰 판자촌으로 그 곳을 흐르는 강이름을 딴 마타하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이들에게도 주기위해 그 곳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11) 밀리센트의 스토리 - 나이로비 (케냐)

스피커: (남) : 지금 우리는 마다하리에 와 있다.

나이로비에서 두 번째 가는 판자촌이며, 이 곳에는 약 50만 명이 살고 있다.

밀리센트 아키니 오웬 (여): 저 분은 우리 어머니인데, 지금 요리 중이십니다.

스피커: (남) 밀리센트 아키니 오웬은 그들 중 한 명이다.

밀리센트 아키니 오웬 (여) (in kiswahili): 저는 나이로비의 판자촌 중 하나인 마다하리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 곳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알콜 중독이 되었고 아빠는 별다른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저를 도와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수녀님들을 통해 마다하리에 포콜라레가 들어왔을 때, 우리 소녀들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여 우리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우리 일상의 삶도 돌보아 주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저는 마다하리를 떠날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이 자라나도록 돕기위해 이 곳에 남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를 위해 제공해 준 경당에 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잔 프란시스, 마리에타, 베르나데타, 키오코 그리고 우리의 교사인 루치아 등 다른 이들이 우리를 도와 주고 있습니다.

스피커: (남) 2005 년도에, 포콜라레 운동 가정들의 도움으로, 작은 성 안나 경당이, 주중에는 3 살부터 6 살까지의 30명 정도의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밀리센트 아키니 오웬 (여) (in kiswahili): 처음 시작했을 때는 매우 어려웠고,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 아이들의 부모들은 우리로부터 많은 것을 기대했습니다. 마다하리에는 돈, 대지 그리고 물질적인 다른 것들을 주는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 하지

만, 그들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하는 일에 대해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곳에 돈이나 사업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그리고 그들 부모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암브로제 옹에노 둘로 (남) (in kiswahili): 저는 우리 가족에게서, 태도와, 위생, 이해, 배움 등의 많은 변화를 보았습니다.

많은 때 우리는 여기에서 다른 부모들과 만나 모두 사랑에 관한 ‘사랑의 주사위’ 라고 부르는 것을 던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이들에게도 전했고, 지금은 집에서도 이것을 삽니다.

밀리센트 아키니 오웬 (여) (in kiswahili): 우리가 비록 판자촌에 살고 생활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받는 것을 사랑으로 활용한다면 모든 것이 거대한 것이 됩니다.

메리 쿠테아 (여) (in kiswahili): 사람들은 변화를 알아차리고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사랑과 우리 아이들의 훌륭한 태도를 보고 미래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아가타 왈바 (여) (in kiswahili) 어느 날 충격이 있었고, 총알 하나가 우리 집 침대에까지 날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잠이 깨어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언제까지 고통당해야 해요?” 그리고는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주사위를 던지고, 주사위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는지 봐요 ”

우리는 주사위를 던졌고, 주사위는 우리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고 했습니다.

밀리센트 아키니 오웬 (여) (in kiswahili): 우리 나라 케냐 특히, 나이로비에는 많은 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평화와 사랑을 가져가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 평화와 조화는 우리 가정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우리와 우리 자녀들 사이에 평화와 사랑이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밖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라파엘: 밀리센트와 그가 하는 일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엠마우스와 헤수스가 5월에 나이로비 근교의 소도시에 갔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곳에서 많은 소리들과 색깔들 그리고 대륙의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과 온전히 아프리카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참여하도록 초대합니다.

12) 피에로 마리아폴리 소도시 (케냐) - 대화하는 문화

스피커 (여) (in italiano): 케냐 나이로비에서 약 30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피에로 마리아폴리 소도시는, 아프리카 대륙의 포콜라레 공동체의 심장이다.

마리아 보체 엠마우스와 헤수스 모란은 5월 14일에서 31일까지 18일간 그 곳에서 지냈다.

교회 인사, 사회 인사들과의 모임, 교회일치 모임, 나이로비의 동 아프리카 가톨릭 대학 법학부와의 만남 등과 같은 저명한 학자들과의 만남, 여러 양성 코스와 모임들이 이어졌다.

이 아름다운 나라의 여러 모습들을 알게 될 순간들은 부족하지 않다.

이 기회를 기해 사하라 사막 남부에서 마다가스카르에 이르기까지 아프리카의 21 개 이상의 나라에서 사람들이 도착했다. 1992 년에 이 곳 나이로비에서 끼아라로부터 태어난 “토착화 학교” 의 제 11 회 주제는 가정이다.

(voce di Chiara Lubich in sottofondo che non occorre tradurre dice : “Faremo una scuola per l’ inculturazione”)

그 기회에 끼아라가 직접, 일치의 카리스마의 빛은 어느 특정한 문화적 환경에 제한되어 있지 않기에 특별한 색깔을 지니지 않지만, 하늘에 매여있어 이 땅위에서 마치 “하나의 흰 빛” 처럼 보인다고 설명한다.

토가 로젤 디온, 아이보리 코스터 (남) (in francese): 저에게 있어서 이 흰 빛은, 우리 일상 생활, 우리 문화 안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현존을 뜻합니다. 이 현존은 우리 문화의 매우 긍정적인 면들을 찾아 내어, 교회와 인류에 전해 줄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니오키 가우덴시아 니비가 (조이아), 케냐 (여) (in italiano): 일치의 카리스마와의 만남은 제게 있어 복음이 제 문화가 된 지점이었습니다.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데, 상대방의 문화를 통해 자신의 문화를 더 잘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페틀 니주메, 카메룬 (남) (in inglese): 제게 “토착화”가 무엇인지 요약하여 표현한다면, 나의 문화를 성화시키고 순화시키는 것입니다.

스피커 (여) (in italiano): 토착화 학교와 뒤 따른 가족들의 모임을 위해 여러 그룹들은 사흘간의 버스 여행 까지 감수하는 등 비싸고 긴 여행을 해야 했다.

이는, 서로 다른 언어와 전통이지만, 분쟁과, 불의, 세계화의 부정적인 의미 등으로 시련을 겪은 아프리카 문화의 중심인 가정의 가치를 되찾고자 하는, 한 공통적인 노력을 말해준다.

복음과 전통, 남자와 여자의 관계, 자녀들 교육에 관한 경험담들은 우리를 각성하게 한다.

알틀 뭉퐁가 뇨이, 콩고, (남) Congo (francese) : 콩고에서 많은 것들은 잘 되어가고 있지만 또한 다른 많은 것들은 잘 되어가고 있지 않은데, 이는 전쟁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 때문입니다. 복음에 맞지 않거나, 실천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치들이 있긴하지만, 우리는 복음의 빛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야나 파라니아나와 라도니아나 란드리아니리나, 마다가스칼 (여) (in malgascio): 이 메시지는 단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구분 없이 이를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 우리 자신을 더욱 더, 다른 이들에게 내어 줄 수 있도록, 빛과 새로운 충동을 주실 것을 청합니다.

전 세계 가정들에게 인사 드립니다.

차오.

13) 엠마우스 예수스의 인상

라파엘: 엠마우스 이 모든 아름다운 소식들을 들은 후에 마음 속으로부터 그 기간에 느꼈던 것을 청해 듣고 싶습니다.

엠마우스: 느낌이라고요? 이 농축된, 참으로 예외적인 비디오를 보면서 새롭게 느꼈다고 할 수 있겠는데, 느낌은 정말 강했습니다. 저는 그 백성의 자녀로 느꼈습니다.

저는 한 가정으로부터, 나의 가정이 된 가정으로부터 환대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참으로 하느님께서 준비해 준, 끼아라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주기위해 준비해 준 백성이라고 느꼈습니다.

이것은 한 새로운 백성에게, 카리스마로 새로워진 백성에게, 참으로 구체적이고 강력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강생하게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아프리카에서 힘들지 않았느냐고 물었을 때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저는 여행을 한 것이 아니라, 경험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가능한 만큼 아프리카인으로 살았고, 아프리카 인이라고 느꼈습니다.

존: 예수스, 첫 아프리카 여행이었지요?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예수스: 여러분은 영상을 보셨지요? 이 것을 통해서도 이해하겠지만, 우리가 살았던 모든 것이 경험이었습니다. 식사하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모든 것이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케냐에 있었지만, 사하라 사막지대에서부터 남 아프리카 지역에 이르기까지 아프리카 전체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들이 어디 출신인지, 부룬디인지, 루안다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주 강한 경험이었는데, 며칠, 몇 주가 지난 지금 제게 남은 것은 마치 영혼이 넓혀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 것은 저의 경험인데, 내가 한 아프리카인과 관계를 맺으면 단지 한 사람 안에만, 한 개인 안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에, 한 백성 안에 들어가게 되므로 제 자신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춤과 축제의 기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넓어지면 그 것을 어느모로든 표현해야하지요, 그런데 이 것은 저 자신 전체를, 몸에도 영향을 미치지요, 그래서 우리는 춤도 추었습니다. 그런데 이 것은 내가 넓혀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힘을 알 수 있었지요. 관계가 잘 못되어 갈때도, 고통과 화해하기 위해 큰 힘이드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예전과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험 후에, 우리가 여기서 사업회를 앞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전혀 다름을 느낍니다.

이 것이 가장 강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라파엘: 감사합니다.

엠마우스 우리에게 아직 무언가 더 얘기해주려고 하셨지요?

엠마우스 (che presenta il video di Chiara):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했고, 예전과 다르지만 이 모든 것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흰 빛’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흰 빛’을 바로 거기 있으면서 더 잘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끼아라가 마지막으로 그 곳에 갔을 때 얘기했던 것을 다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것을 듣는 것이 얼마나 달랐는지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끼아라가 얘기하는 저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빛은 그 백성의 문화가 아니지만, 그 백성의 문화에 뚫고 얼마나 분명하게 깊숙히 들어가는지 그 ‘흰 빛’이 그 백성의 문화와 다르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 보이도록 했기 때문에 그 곳에서, 그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이 경험을 하고 난 지금, 시계를 풀어 놓고 아프리카 리듬이 우리를 이끌도록 따라가 아프리카의 움직임에 함께 한 지금, 이 영혼으로 끼아라의 말의 일부를 들으면 완전히 다른 인식을 갖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흰 빛’은 아프리카 만을 위한 것이 아니지만, 아프리카가 이 다이아몬드를 인류에게 보게 해 주었다고 할 수 있으니, 그 백성이 하느님에 의해 준비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끼아라가 이 진주,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빛, 아프리카 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 모든 문화에 이 빛을 줄 수 있게 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끼아라가 우리를 함께 데려가 주도록 하면서 들어보도록 합시다.

14) 끼아라 루빅: 상대방의 문화 안으로 들어가는 것

끼아라 루빅:

저는 2년 정도 전부터, 우리 영성의 교의로부터 신학, 철학, 그리고 미학, 과학으로 표현되는 이 교의가 드러나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음을 기억했습니다. 우리 영성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조금씩은 내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로부터, 예를 들어 로마와 같은 특정한 문화적 환경에 한정되지 않은, 한 카리스마에 연결된 교의가 나오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하느님으로부터 온 카리스마이므로 하늘에 연결되어 유럽적인 색, 아프리카적인 색, 아메리카적인 색을 지닌 것이 아니라, 색깔이 없는 흰색, 하늘의 색, 하나의 흰 빛처럼 내려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저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한가지 강력한 것을 맡기셨다.” 고 했습니다. 아프리카가 토착화를 주장하고, 남아메리카, 아시아가 토착화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를 실행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신학이 나올까요? 단지 ‘말씀의 씨앗’만을 합쳐서 한 신학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말씀의 씨앗’들은 노래, 시적 표현인데, 그 것들을 다 함께 합친다 해도 그리스도교적 메시지 전체를 이루지는 못합니다. 서로 다른 모든 백성들, 서로 다른 모든 문화에 줄 수 있는, 한, 완전한 그리스도교적 메시지가 어떤 의미로 하늘로부터 내려 올 필요가 있습니

다. 인간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로부터 오기에 모두가 자신의 것으로 느끼고, 자신들의 문화적, 그들의 특정한 문화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토착화를 위한, 초강력 무기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오로지 우리들의 것이며, 우리는 일치의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으니 만일 우리가 이상을 급히, 서둘러서 살지 않고, 활동에만 치우치지 않고, 즐면서 살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을 정말 진지하게 산다면, 우리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

하나가 되어 주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네 문화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고, 상대방의 문화에 들어가 이를 이해하고, 네 안에서 이를 온전히 이해 할 때까지 그가 자신을 다 표현할 수 있게 놓아둔다면, 그 때부터 너는 그와 대화를 시작하고 그가 이미 지니고 있는 부를 통해 복음적 메시지도 전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하나가 되어 주는 것은 토착화를 요구하며, 이는 영혼 안에, 문화 속에, 사고 방식 안에, 전통 안에, 관습 안에 들어가 이를 이해 하고 말씀의 씨앗이 드러나게 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해했나요? (박수)

15) 라파엘:

끼아라의 이 초대로 끝을 맺겠습니다.

저는 엠마우스가 얘기한 것처럼 단지 아프리카에게 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 초대를 했다고 느낍니다.

작별인사를 하기전에 다음 합동전화를 기억하도록 합시다. 다음 합동전화는 9월 17일 12시입니다. 9월 17일 이태리 시간으로 12시입니다.

합동전화 사이트에서 전체 그리고 각각의 소식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존: 9월에 다시 만납시다!

Koajerin!

라파엘: *Achpup!*